

베일 벗은 정의선 수석부회장 인사스타일

전문성 검증된 리더 통한 자율경영... 기술중심·혁신도 강조



'자율'·'외부개방' 핵심에 관심 쏠려 대대적 인사 속 안정감·균형감 유지

현대자동차그룹의 12일 계열사 사장단 인사는 '자율'과 '외부개방'을 핵심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경영스타일을 점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수년째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인사는 대대적인 세대교체와 함께 정의선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체제가 재편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정몽구 회장을 보좌해오던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2선으로 물러나고 정의선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그룹 경영체계가 새롭게 정립됐다.

정의선 부회장은 지난 9월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수석부회장 자리에 오른 뒤 미래 경쟁력 분야 및 중국 등 해외 사업 부문에 대한 쇄신 인사를 통해 조직 재편을 계속 추진해 왔다. 중국을 시작으로 이달 초에는 미국과 인도 등 일부 해외 권역본부의 수장을 새롭게 교체했다.



우유철(禹惟哲) 현대로템 부회장 ▲ 1957년생(61) ▲ 뉴욕주립대 기계공학 박사, 서울대 조선공학 석/학사 ▲ 주요경력

-현대제철 대표이사 (부회장) -현대제철 생산총괄, 당진제철소장, 제철사업총괄/구매본부장(겸) (사장)



정진행(鄭鎭行) 현대건설 부회장 ▲ 1955년생(63) ▲ 서강대 무역학 학사 ▲ 주요경력

-현대자동차 전략기획담당 (사장/부사장) -현대자동차 유럽총괄법인장 (전무) -현대자동차 아/태지역본부장 (상무)



김용환(金容煥) 현대제철 부회장 ▲ 1956년생(62) ▲ 고려대 경영학 석사, 동국대 무역학 학사 ▲ 주요경력

-현대자동차 기획조정실장, 구매/감사실/전략기획담당/법무실/글로벌경영연구소/인재개발원 담당부회장(겸) (부회장)

이번 계열사 사장단 인사 역시 예년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대규모로 이뤄졌다. 통상 승진 인사 이후 보직 인사를 따로 내왔던 현대차그룹이 이번에는 인사를 한번에 묶은 것이다.

인사의 방향은 세대교체와 정의선 시대의 본격 개막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 전문성과 리더십 검증이 끝난 경영진들을 주요 계열사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그룹 전체에 대한 자율경영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전문성과 리더십이 검증된 경영진들을 주요 계열사에 배치함에 따라 경영혁신과 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북미와 유럽, 인도, 러시아 등에 글로벌 권역본부를 설립하고 현장 중심의 자율경영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정 부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의 전략 강화를 위해 파격 인사도 단행했다. 정 부회장은 그룹의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부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현대·기아차 차량 성능담당 알버트 비어만 사장을 신임 연구개발본부장에 임명했으며, 현대오트론 조성환 부사장을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본부장으로 발령했다. 외국인 임원을 연구개발본부장에 임명한 것은 처음으로, 실력 위주의 글로벌 핵심 인재 중용을 통한 미래 핵심 경쟁력 강화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현대차그룹 측은 설명했다.

비어만 사장은 2015년 현대차그룹 합류 이후 신차 성능 개선에 크게 기여했

고, 고성능차 사업의 성공적 시장 진입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비어만 사장은 연구개발본부의 일하는 방식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정 부회장이 평소 강조해온 'IT 기업보다 더 IT 기업' 같은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지영조 부사장의 사장 승진으로 전략 기술본부의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부회장이 강조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업체'로의 전환 계획도 속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시티,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에 대한 핵심과제 수행 등의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최근 중국 및 해외사업 부문의 대규모 임원 인사에 이어 그룹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룹 차

원의 인적 쇄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며 "특히 전문성과 리더십이 검증된 경영진들을 주요 계열사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대대적인 인적 쇄신 속에서도 안정감과 균형감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새로 임명된 주요 계열사 사장단 대부분이 50대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임 현대로템 대표이사에 내정된 이건용 부사장, 현대다이모스-현대파워텍 합병 법인의 여수동 사장, 신임 현대오트론 문대홍 사장, 현대캐피코의 방창섭 신임 대표 내정자 등이 모두 50대다.

이처럼 대대적인 인사를 진행하면서도 그룹의 주요 부회장과 사장들을 계열사 임원 자리에 배치함으로써 안정감과 균형감을 유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룹과의 원활한 소통이 기대되는 물론 과거 경험과 역량을 계열사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평가다.

신임 현대로템 부회장에 임명된 우유철 부회장은 과거 현대로템에서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했으며, 현대건설 부회장으로 임명된 정진행 사장도 현대건설에 입사, 자재구매업무 담당했던 바 있다. 이와 함께 현대·기아차 생산개발본부장 서보신 부사장을 생산품질담당 사장으로, 홍보실장 공영운 부사장을 전략기획담당 사장으로 각각 승진해 보임됐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인사 주요 프로필



알버트 비어만 (Albert Biermann) 현대자동차 사장 ▲ 1957년생(61) ▲ 아헨공대 기계공학 석사/학사



지영조(池永朝) 현대자동차 사장 ▲ 1959년생(59) ▲ 브라운대 응용수학박사, 브라운대 기계공학 석사/학사



공영운(孔泳云) 현대자동차 사장 ▲ 1964년생(54) ▲ 서울대 경영학 학사



서보신(徐補信) 현대자동차 사장 ▲ 1957년생(61) ▲ 한양대 정밀기계공학 학사



박정국(朴禎國) 현대모비스 사장 ▲ 1957년생(61) ▲ 서울대 기계공학 석사/학사



황유노(黃有老) 현대캐피탈 사장 ▲ 1958년생(60) ▲ 홍익대 경영학 학사



여수동(呂洙東) 현대다이모스/현대파워텍 사장(겸직) ▲ 1961년생(57) ▲ 영남대 경영학 학사



문대홍(文大興) 현대오트론 사장 ▲ 1960년생(58) ▲ KAIST 기계공학 석사, 한양대 기계공학 학사



이건용(李建鎔) 현대로템 부사장 ▲ 1960년생(58) ▲ 한양대 생산기계공학 학사



방창섭(方昌燮) 현대캐피코 부사장 ▲ 1960년생(58) ▲ 크랜필드대 기계공학 석사, 경북대 기계공학 학사

연합뉴스, 2만여 명 인물정보 수록한

'2019 한국인물사전' 출간

국내 각계각층 주요 인사 2만여 명의 프로필을 담은 국내 최대 인물사전 '2019 한국인물사전'이 발간됐습니다.

연합뉴스가 펴낸 이 사전은 정·관계를 비롯해 경제계,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종교계 등에서 활동하는 저명인사를 총망라했습니다. 각 인물의 기본 정보와 경력 사항, 저서 등 자세한 정보와 함께 얼굴 사진을 수록했습니다.

특히 2019년 판에는 '기획 인물' 편을 따로 마련해 지난 6월 13일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의 프로필을 상권에 별도로 묶어 소개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수록 인사들과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촉했고 인터넷 자료와 관련 문헌도 꼼꼼하게 참조했습니다.

2019년 판은 수록 인물을 보다 엄격하게 선정해 기존 2만5천여 명에서 2만여 명으로 줄이는 대신, 글자 크기는 키워 가독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 국배판 · 상권 1천 436쪽 하권 1천 416쪽

■ 가격 : 18만원



www.yonhapnews.co.kr